LG 그룹 '미래사업' 중심 승부수
백승태·이상우 사장 2명 배출

계열사 2027 정기 임원인사

총 44명 임원 승진인사 단행
LG전자, 로보틱스·AIDC 사업 강화
LG화학·이노텍·엔솔 부사장 발탁


백승태 LG전자 사장


이상우 LG전자 사장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진을 재정비하고 미래사업 중심의 조직개편에 나섰다. LG전자에서 사장 승진자 2명이 배출된 가운데 LG화학과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부사장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19일 LG에 따르면 LG전자는 사장 2명, 부사장 3명, 전무 10명, 상무 29명 등 총 44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LG화학은 14명, LG에너지솔루션은 11명, LG이노텍은 9명을 각각 승진시켰다.

LG전자에서는 백승태 HS사업본부장과 이상우 ㈜LG 경영전략부문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백 사장은 생활가전 사업을 이끌며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화를 추진해 왔다. 이상우 사장은 LG전자 MS사업본부장 겸 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맡아 TV·미디어 사업을 총괄한다.

부사장 승진자는 박지환 경영관리담당, 이재현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 이진효 법무그룹장 겸 준법사무국장 등 3명이다. 박 부사장은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를, 이재현 부사장은 신설 ES어플라이드사업부장을 맡는다.

LG전자는 기존 4개 사업본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사업을 위한 어플라이드사업부와 전장사업의 고성능 컴퓨팅(HPC)·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개발 조직을 신설한다. 생산기술원 산하 스마트팩토리솔루션센터는 스마트팩토리사업센터로 재편한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송시용 로보틱스사업센터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해외 지역대표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변경하고 글로벌파트너십센터도 신설한다.

LG화학에서는 김무용 팜한농 대표이사와 김상민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무용 부사장은 생명과학사업본부장으로 이동하며, 김상민 부사장은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을 계속 맡는다. 심규석 전무는 첨단소재사업본부장으로 이동하고 이충훈 신임 전무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는다. 팜한농 대표이사에는 최학용 상무가 선임됐으며, 고경덕 전자소재사업부장도 전무로 승진했다.

LG이노텍에서는 조지태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 부사장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생산역량 확대와 수율 안정화 등 반도체 기판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동훈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전무로 승진했으며, 신규 상무 7명 중 4명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발탁됐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조준형 정도경영담당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재권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정규 파우치·각형기술그룹장, 정원희 소형전지사업부장, 현오영 최고품질책임자(CQO) 등 4명은 전무로 승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수주 확대를 위한 마케팅·프로젝트관리(PM) 조직과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R&D 조직을 확대하고 북미 현지 품질 조직도 강화한다.

LG디스플레이는 기존 대형·중형·소형 3개 사업부를 중대형·소형 2개 사업부로 재편했다. 대형과 중형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고 중형 제품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LG전자에서 전입한 이정희 상무는 전무로 승진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는다.

LG 주요 계열사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로보틱스와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배터리, 반도체 기판 등 미래 성장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SK, HBM 증산에 후공정 거점 재편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5라인 착공
SK하이닉스, 청주에 P&T7 건설
美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거점 구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증산에 맞춰 후공정 생산 거점을 재편하고 있다. 차세대 제품의 제조 난도가 높아지면서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충남 아산 온양캠퍼스에서 차세대 HBM 첨단 패키징 시설인 5라인 착공식을 열었다. 당초 계획보다 가동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8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에 공장 건설비 6조원과 첨단 장비 투자비 40조원 등 총 46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 5라인에는 3개 층에 걸쳐 약 3만 1000㎡ 규모의 클린룸이 들어선다. 증설이 완료되면 사업장 연면적은 기존 27만㎡에서 42만㎡로 확대된다.

온양캠퍼스는 지난 1991년 반도체 조립·검사 라인으로 출발한 삼성전자의 주요 후공정 거점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천안에 집중됐던 첨단 패키징 생산 기반을 온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후공정 시설 확충에 나선 배경에는 HBM의 기술 고도화가 있다.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연결하는 제품으로 적층 과정의 수율과 발열 관리가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HBM4부터는 베이스다이에 첨단 로직 공정이 적용되면서 제조 복잡성도 높아졌다.

메모리 생산량뿐 아니라 패키징과 검사 공정의 처리능력도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요소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역량을 연계해 차세대 HBM 시장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도 후공정 생산능력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에 약 19조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공장인 P&T7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7년 말 완공이 목표다.

P&T7은 청주 M15X에서 생산하는 HBM용 D램의 후공정을 담당할 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전공정 생산시설과 패키징 공장을 인접 배치해 물류 효율과 생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주를 HBM 생산부터 패키징까지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후공정 시설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을 구축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의 후공정 투자 확대는 HBM 증산과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 P4를 중심으로 HBM용 D램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청주 M15X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공정 생산능력 확충과 함께 패키징·검사 시설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HBM 중심의 생산체계 재편은 범용 메모리 후공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체 패키징 설비와 인력이 고부가 HBM에 집중되면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의 외부 위탁 필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천안·온양 후공정 재편과 메모리 생산량 증가가 범용 메모리 외주화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외부 전문기업과 장기 후공정 위탁 계약을 맺는 등 자체 생산시설과 외부 생산역량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HBM은 전공정에서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패키징과 검사 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신규 시설의 가동 시점과 초기 수율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소캠2'로 에이전틱 AI 공략

탈착식 모듈 구조로 교체·확장 용이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 70%↑



삼성전자 LPDDR 기반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SOCAMM)2'. /삼성전자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면서 서버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D램(LPDDR) 기반 서버용 메모리 모듈 'SOCAMM2(소캠2)'를 앞세워 변화하는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테크블로그에 따르면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서버 메모리의 용량과 대역폭뿐 아니라 전력 및 공간 효율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기존 생성형 AI와 달리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이다. 추론과 행동, 결과 관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AI 모델 호출이 늘어나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도 증가한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협업하는 환경에서는 이전 작업 결과와 대화 맥락 등을 저장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산 결과를 재활용하는 핵심값 캐시(KV캐시)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용량과 데이터 처리 속도의 중요성도 커진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솔루션으로 SOCAMM2를 제시했다. SOCAMM2는 모바일 기기에 주로 사용되던 LPDDR의 저전력·고대역폭 특성에 탈착 가능한 모듈형 구조를 결합한 서버용 메모리다.

기존 LPDDR은 메인보드에 직접 납땜하는 방식으로 장착돼 서버 구축 이후 메모리를 교체하거나 용량을 확장하기 어려웠다. 반면 SOCAMM2는 메인보드 교체 없이 모듈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AI 작업에 따라 메모리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공간 활용도와 냉각 효율을 고려한 설계도 특징이다. 수평형 구조를 적용해 서버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냉각장치 배치와 공기 흐름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에도 유리하다.

삼성전자의 LPDDR5X 기반 SOCAMM2는 최대 153.6GB/s의 대역폭을 지원한다. 기존 DDR5 RDIMM 대비 약 2.6배 수준이며 에너지 효율도 7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CES 2027 혁신상'을 수상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2026'에서 베라 루빈 플랫폼용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했다. 당시 베라 중앙처리장치(CPU)용 SOCAMM2의 품질 검증을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LPDDR6 기반 SOCAMM2로 기술을 발전시켜 대역폭과 용량, 전력 효율을 추가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테크블로그에서 "에이전틱 AI를 위한 시스템 메모리는 용량과 대역폭, 전력 효율, 공간 효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SOCAMM2는 LPDDR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모듈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AI 작업에 적합한 메모리 구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인터, 美 LNG 도입·셰일가스 인수

이달 美 LNG 7만3000t 도입
광양 저장기지 확충, 가스전 증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 물량 도입과 셰일가스 자산 인수를 추진하며 에너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의 약 60%를 차지한 에너지 부문에서 조달·거래와 가스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재·식량 부문에서도 생산·가공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달 미국산 LNG 약 7만3000t을 광양 LNG터미널에 도입할 예정이다. 2022년 미국 셰니에르에너지와 체결한 연간 40만t 규모의 20년 장기계약에 따른 첫 물량으로, 지난달 전용선 'HL FORTUNA'호에 선적됐다.

회사는 내년부터 미국산 LNG를 유럽에 판매하고 국내 필요 물량은 아시아에서 별도로 조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장기계약 물량을 활용해 지역별 거래 기회를 확대하려는 구상이다.

에너지 부문은 회사 실적의 핵심 축이다. 지난 3분기 연결 영업이익 4007억원 중 2391억원(59.7%)을 차지했다. 호주 세넥스 영업이익은 5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4% 증가했고, 발전사업(852억원)과 미얀마 가스전(980억원)도 각각 21.9%, 8.9% 늘었다.

국내 LNG 저장·처리 기반도 확대됐다. 지난 10일 전남 광양 제2LNG터미널 준공으로 총 저장능력이 93만kl에서 133만kl로 늘었다. 광양 터미널은 외부 고객사의 LNG를 하역·저장·기화해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동시에 자체 발전용 수요에도 대응한다.

해외에서는 가스 생산자산 확보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확인실사를 마친 미국 셰일가스 상류 자산의 인수대금을 이달 말 확정하고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인수 후 연간 약 50개의 생산정을 시추해 생산량을 늘리고, 2040년까지 연평균 약 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기존 해외 가스전도 증산을 추진 중이다. 하루 평균 약 5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미얀마와 중국에 공급하는 미얀마 가스전은 2027년 추가 생산을 목표로 4단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내년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이내에서 절반 가량을 에너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